

하얀 종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점·선·면도 없고 색도 없었다. 그러나 김신일은 거기에 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림을 마주한 사람들은 고개를 가우뚱거렸고 이때 김신일은 그림의 정면을 향하고 있는 빛을 살짝 기울였다. 그러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두꺼운 종이 위에 가늘게 파인 나무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학부 시절, 김신일이 처음 '압인' 드로잉 작품을 선보였을 때의 이야기다. 두꺼운 종이 위



에 다 닳은 펜으로 그림을 그리면 보이지 않는 선, 보이지 않는 면이 생긴다. 그 보이지 않는 그림은 빛의 방향에 따라 그림자를 만들어 내며 흐린 선을 그려 나간다.

“17세기 데카르트가 정신과 물질을 분리한 이후 우리는 그 생각을 당연히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과 물질은 분명 '만남점'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말이죠. 작업에서의 컨셉트는 일종의 아이디어고 정신인데 반해, 작업 과정은 사물이나 물질에 가까운데 그 둘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찾게 된 표현 방법이 바로 압인이죠.”

정지되어 있었던 김신일의 압인 드로잉은 그가 도미해 컴퓨터 아트를 전공하면서 움직임에 가지기 시작했다. 비디오로 찍은 실사 동영상을 1초에 30컷씩 스틸컷으로 분리해 내 압인 작업을 거친 후 이를 다시 비디오로 찍어 작품을 완성해 낸다. 듣기만 해도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작업. 그러나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운 화면 속의 사람들은 흰 테이블에 떨어져 있는 물방울처럼 단순하기 그지없다. 그림자가 만들어 낸 '선', 그 선이 만들어 낸 '면'은 꼬물꼬물 작은 움직임을 계속한다. 화면 앞에 붙어 서서 뚫어져라 그 단순한 형체를 바라보는 관람객들. 사실 그들이 바라보는 것 역시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들의 모습이다.

'Invisible Masterpiece'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소위 '걸작'이라 불리는 작품들을 감상하기 위해 벽 앞을 서성대는 관람객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작품 안 어디를 봐도 박물관은 없다. 걸작이 걸려진 벽도 없고, 물론 걸작도 없다. 사실 기울어진 빛이 없다면 관람객도, 그들의 움직임도 없진 마찬가지다.

“굳이 작업의 주제를 꼽으라면 '공(空)'과 '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그림은 선으로 표현되지만 사실 선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선이 있음을 말할 때 선이 생기는 식이니까요. 사물들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 존재합니다. 그 관계 위에는 선이 존재하고요.”

말주변이 없다는 작가의 얘기와는 다르게 그는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한다. 끄덕끄덕. 얘기를 듣는 동안은 이해가 되는 듯했지만 만 뒤돌아 생각하니 다시 감을 통 잡을 수 없다.

그럴 땐 작품이다. 사실 컨템포러리 아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작가의 컨셉트 설명은 가끔 절대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작가의 변을 듣고 나면 더욱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그의 작품 앞에 선다. 역시 압인 비디오 작품인 '물'.

손을 씻는 이미지가 보여진다. 두 손을 포갠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포개어 비벼 대고... 누가 봐도 손을 씻는 모습이지만 사실 화면 위에는 손이 없다. 그저 손의 겉과 속을 감싸다가 떨어지는 물만 보일 뿐이다. 힘 있는 종이로 감싼 둥근 돌. 거기서 돌을 빼내도 종이는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것처럼 손을 감싼 물에서 손을 빼내도 흐르는 물의 모양은 보는 이에게 손의 움직임을 상상하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김신일이 정의하는 '공(空)'과 '중용'과 '관계'의 이야기다. 두 사물이 만나는 중간의 선에서 하나를 비워도 둘의 관계는 살아 있고, 하나의 사물이 없어졌다 해도 그것은 비록 허상의 모습으로라도 '실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관람객들 앞에 놓인 '걸작'을 깨끗이 지워 버린 'Invisible Masterpiece'는 걸작들을 'Invisible'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공(空)'과 '관계'에 대해 사색케 한다. 또한 같은 제목의 비디오 작품 'Invisible Masterpiece'는 압인 작업을 통해 빛의 방향에 따라 'Invisible'해지니 작가는 'Invisible'이란 단어 하나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곳에 없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있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다. 있고 없고는 관계의 문제다. 그래서 김신일의 작품은 '실존'한다. 다 닳은 펜이 그려 내는 보이지 않는 선과 빛의 관계 속에서.

4월 4일까지 인사미술공간.

글·박용원 기자(spirate@) | 사진·김윤배